

#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상향해야” 임실 김장페스티벌 이벤트 인기

### 최영일 순창군수, 전국 6개 군 단체장·부단체장들과 국회 찾아 강력 요청

최영일 순창군수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부담을 상향할 공식 건의했다.

이날 최 군수는 충남 청양군,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전국 6개 군의 단체장 및 부단체장과 함께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현행 국비 40%를 8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사업으로, 전국 60개 군 중 7개 군이 최종 선정됐다.

순창군도 시범지역에 포함돼 주민들로부터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본소득은 1인당 월 15만 원씩 2년간 지급되는 구조다.

그러나 국비 40%, 지방비 60%의 분담 구조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방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순창군의 재정자립도는 9.1%에 불과해 기본소득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면서 지역 개발 사업을 병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영일 순창군수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부담을 상향할 공식 건의했다.

이 같은 문제는 순창군뿐 아니라 영양군(6.7%), 청양군(8.6%), 신안군(8.9%), 남해군(9.5%) 등 대부분의 참여 지자체가 공통으로 겪고 있다.

이에 따라 7개 군은 국비 확대 없이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데 뜻을 모았다.

최영일 군수는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공동체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지만, 과도한 지방비 부담은 오히려 지역 발전을 제약할 수 있다”며 “시범사업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비 확대라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7개 군 단체장들은 공동 건의문을 통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 정책”이라며 “국가가 더 큰 책임을 지고 국비 부담률을 80%로 상향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편, 순창군은 향후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군, 23일까지 SNS 응원댓글 이벤트 진행

김장의 계절 11월을 맞아 임실군이 주최하는 제10회 임실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 사전주변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는 가운데 김장축제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한 SNS 응원댓글 이벤트도 덩달아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공식 SNS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 ‘김장페스티벌 응원 댓글 이벤트’를 진행 중이며, 참여자 중 5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날 열리는 김장체험 행사 개막일에는 개막식, 김장시연, 즉석 노래자랑(참여자 기념품 제공), 음식 부스(수육, 밥, 김치, 국 세트 1만원 판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다.

김장세트 주문 및 사전 예약은 (농)임실앤양남(주) 전화(063-643-8949, 063-644-4289) 및 홈페이지(http://www.imslin.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심민 군수는 “김장은 함께 해서 더 따뜻하고 나눌수록 깊어지는 우리고유의 문화인 만큼,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 많은 분들이 우리군의 따뜻한 인심과 정을 미리 나누시기를 바란다”며 “맛있는 배추로 김장도 하고 임실의 아름다운 경관도 함께 즐기며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1일부터 23일까지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개최되는 김장체험행사 사전예약은 빠른속도로 마감에 임박해 그



인기를 입증하고 있다.

21일 열리는 김장체험 행사 개막일에는 개막식, 김장시연, 즉석 노래자랑(참여자 기념품 제공), 음식 부스(수육, 밥, 김치, 국 세트 1만원 판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다.

김장세트 주문 및 사전 예약은 (농)임실앤양남(주) 전화(063-643-8949, 063-644-4289) 및 홈페이지(http://www.imslin.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심민 군수는 “김장은 함께 해서 더 따뜻하고 나눌수록 깊어지는 우리고유의 문화인 만큼,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 많은 분들이 우리군의 따뜻한 인심과 정을 미리 나누시기를 바란다”며 “맛있는 배추로 김장도 하고 임실의 아름다운 경관도 함께 즐기며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1일부터 23일까지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개최되는 김장체험행사 사전예약은 빠른속도로 마감에 임박해 그

/임실=진홍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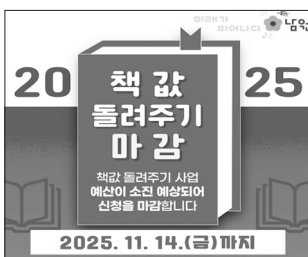
## 남원시, ‘책값 돌려주기’ 14일 마감

남원시는 시민들의 일상 속 독서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해 온 ‘책값 돌려주기 사업’이 시민들의 높은 참여로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올해는 11월 14일자로 마감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6년째를 맞은 이 사업은 시민 독서 활성화와 지역서점 이용 촉진을 위해 매년 시행, 시에 따르면, 올해

사업에는 현재 시민 1,226명이 참여해 총 2,137권의 도서를 구입했으며, 이에 따라 예산이 전액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 조기 마감하게 됐다.

‘책값 돌려주기’ 사업은 시민이 남원 지역서점에서 책을 구입한 뒤, 한 달 이내에 남원시 공공도서관 3개소(어울림·시립·어린이청소년) 중 한 곳에 구입 도서와 영수증을 제출하



면, 월 2권, 최대 4만 원까지 남원사랑 상품권으로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한국교통안전공단,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

남원시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2025년 하반기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를 운영한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2025년 4월 28일 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 5개 검사항목에서 제동장치·주행장치 등 19개 검사항목으로 2년마다 지정된 정비업체에서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남원시의 경우 교통안전공단 검사 장소 1곳만 있어 읍·면지역 주민들이

검사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주민들의 검사 편의를 위하여 18일 아영·산내 19일 운봉·인월 20일 이백·송동 21일 대신·금지에서 출장 검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검사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아영면은 구) 아영면행정복지센터, 이백면은 치안센터 인근 공터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

작된 중·소형(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 및 대형 이륜자동차(전기 이륜자동차 포함)로, 하반기 검사 유효기간 만료 차량 135대가 해당한다. 시는 대상자들에게 사전 안내를 완료했으며, 검사 시에는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의무보험 가입 증명서, 수수료 3만 원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출장검사 기간 내 미수검 시 교통안전공단 남원검사소에 방문해 검사받아야 하며, 검사 지연 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간 내 반드시 검사받아야 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군 귀농귀촌 어울림 한마당 행사 성료

순창군 귀농귀촌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지난 7일 순창군 국민체육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사)순창군귀농귀촌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에 정착한 귀농·귀촌인과 군민이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오후 1시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민속경기, 장기자랑, 시상식, 석식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귀농·귀촌인 250여 명을 비롯해 군민과 관계 공무원, 내외빈 등이 참석해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시금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식전 공연에서는 벨리댄스와 가수 무대가 흥겨운 분위기를 이끌었으며, 이어진 개회식에서는 조동욱 순창군 귀농귀촌협의회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손종석 군의회 의장, 정용준 전국귀농귀촌중앙회장의 축사와 격려사가 이



어졌다. 본 행사에서는 순창군 내 9개 지회가 참여해 다양한 민속경기와 장기자랑을 펼쳤다.

장기자랑에는 18개 팀이 참여해 노래, 춤,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으며, 특히 각자의 귀농·귀촌 경험을 녹여낸 공연은 관객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행사 마지막에는 시상식과 함께 참가자 전원이 함께 석식을 나누며 화합의 의미를 더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지역 소식통

### 남원시 농업인의 날 맞이 행사 개최

남원시 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강성철)는 남원시 농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격려하고 평소 농업·농촌을 사랑하는 내외빈을 초청하여 고마움을 표할 예정이다. 행사는 시민과 함께하는 잔치 마당을 열어 남원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10일부터 11일까지 사랑의 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남원시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농산물 판매 잔치 및 체험마당, 제30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등을 할 예정이다.

농산물 잔치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남원 각지에서 생산되는 최고품질의 농산물로, 지역경제 및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하여 판매금액의 약 30%정도를 남원사랑상품권으로 환급 할인 예정이다.

또한 농업을 사랑하는 시민 및 관광객에게 1,000인의 밥상(비빔밥)을 준비하여 밥맛 좋고 품질 좋은 남원농산물을 시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날의 주인공인 농업인들과 30주년 기념 떡 케이크를 잘라ناول 예정이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제30회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노고를 기리고 지역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분을 분야별로 4명을 선정하여 농업인대상을 수여하고 시과평의회 결과 전시와 쌀 품종별 식미평가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개최

임실군(군수 심민)은 지난 6일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제13회 임실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안건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의 주요 안건은 2026년도 본예산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심의로, 예산의 적정성 타당성, 효율성을 종합 검토했다. 그 결과 346건, 213억 1,081만 원 규모의 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향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